

Henry James의 *The Sacred Fount*에 나타난 예술가상

조 홍 근

1. 들어가며

*The Sacred Fount*는 1900년에 쓰여져서 잡지에 연재되지 않고 곧바로 1901년에 출판되었다. 작품에 대한 계획이나 메모도 *Notebooks*에 단지 짤막하게 세 번 나올 뿐이며, *New York Edition*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이 작품에는 서문조차 없다. 따라서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이 작품에 대한 James의 견해는 접하기가 힘들고, 그저 몇몇 편지에서 단편적으로만 접할 수 있을 뿐이다. 1901년 3월 15일에 Mrs. Humphrey Ward에게 보낸 편지와 1901년 8월 9일에 W. Morton에게 보낸 편지에서 James는 *The Sacred Fount*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James는 이 편지들에서 *The Sacred Fount*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다”거나 “단순한 수수께끼”라고 치부하며 (*Letters 4*, 185-6; 198), “순전하고 단순한 기법의 문제” (*Letters 4*, 198)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런 태도로 보건대 James는 처음부터 *The Sacred Fount*를 좋은 작품으로 여기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물론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겸손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 작품에 대한 James의 반응은 같은 실험기에 속하는 *What Maisie Knew* (1897)나 *The Awkward Age* (1899)에 대한 반응과는 천양지차이다. 특히 *The Awkward Age*에 대한 James의 자부심이 대단히 컸던 점에 비하면, *The Sacred Fount*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대단히 낮았다.

James 자신이 이 작품을 “단순한 수수께끼”나 “재치있는 익살” (*jeu d'esprit*)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한 이유는 “착상의 빈약함”(tenuity of idea) (*Letters 4*, 251)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심리를 과도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 작품의 착상은 그야말로 단편소설에나 적합한 것인데도 “과도한 취급”(overtreatment)을 한 탓에 이 작품이 장편소설의 길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1890년대에 출판된 James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단편소설로 계획되었으나 집필과정에서 점점 더 길어

저 장편소설의 길이로 늘어난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의 경우에는 집필과정 자체가 좀 지리했던 인상이 강하다. 작품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대단히 커서 언제 이 작품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앞서 언급한 편지들에 가득 배어있는 점을 보면, James 스스로가 자주 고백했던 과도한 취급 문제가 이 작품의 경우에는 더욱 컸음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취급”의 문제는 *The Spoils of Poynton* (1897) 이후로 질게 드러나는 심리분석 경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The Spoils of Poynton*만 하더라도 Fleda Vetch의 다소 모호한 심리에 침잠한 결과 작품의 의미도 어느 정도 불분명해지고 모호성을 띠게 되었다. James는 극단적인 심리분석을 *The Sacred Fount*에서 실험함으로써 스스로도 이 작품을 “단순한 기법의 문제”라고 치부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 작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은 거의 없고, 장편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대화로 극화된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의 전부가 화자의 주관적인 심리를 다루는 부분에 해당한다. 게다가 화자의 심리도 병적일 정도로 도착적인 것이어서, 이 작품의 경우는 “과도한 취급”이라는 평가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작품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간략하게 뼈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일인칭 화자가 Newmarch라는 런던 교외의 한 저택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열차를 타고 가던 중에 Newmarch로 가는 일행인 Mrs. Brissenden과 Gilbert Long을 만난다. 화자는 Mrs. Brissenden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도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 그녀가 이전보다 더 젊어지고 더 아름다워진 탓이다. 그녀의 실제 나이는 42-3세쯤 되지만 화자가 이번에 보기에 30세쯤 되어 보이는 것이다. 화자는 Gilbert Long 역시 전보다 더 “지적이고” “뚝뚝해”졌음을 감지한다. 이들의 놀라운 변화 요인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던 화자는 Newmarch에서 Brissenden이 이전보다 더 늙어보인다는 점을 발견한다. 원래 Mrs. Brissenden보다 나이가 더 적은 Brissenden이 이처럼 늙어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한 화자는 이 부부의 관계를 일종의 흡혈행위(vampirism)에 비유하여 “신성한 샘물”(the sacred fount)에 기인한다고 여긴다. 즉 부인이 남편의 정기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화자의 “이론”이 성립되기 시작하여 이후의 이야기는, Gilbert Long을 그토록 “지적”이고 “뚝뚝하게” 만든 장본인, 즉 상대방 여성이 누군가를 순전히 심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화자가 탐정처럼 파헤쳐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지적인 면에서 정기를 뺏고 빼앗긴 관계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 과정 끝에 화자의 ‘이론’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어하던 화가 Ford Obert는 결국 화자의 '이론'에 흥미를 잃게 되고, 흥미있어 하며 화자와 더불어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던 Mrs. Brissenden은 화자의 이론을 강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미쳤군요(You're crazy.)" (217)¹⁾라고 공격하게 된다. 화자가 자기 '이론'을 정립하고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있는 현실에 자기의 '이론'과 같은 '질서'를 부여하려는 과정과 노력은 Mrs. Brissenden에 의해 패배하는 것으로 끝난다. 사실 뼈대에 해당하는 즐거이는 지극히 단순한데, 화자가 자신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론에 맞추어 현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화자의 주관적인 심리세계의 분석을 통해 지리하게 펼쳐진다.

화자의 주관적인 심리세계 혹은 화자의 이론적인 작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작품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나뉘인다. 우선 작품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도 James 자신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작품이 단순한 기법실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 작가들이 처한 고립된 세계를 훌륭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높은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²⁾

이 글에서 취하는 입장은, 이 작품을 단순히 실패작이라고 평가한 채 외면하기보다는 훌륭한 작품은 못되지만 James가 *Roderick Hudson* 이후로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심미주의에 대한 비판과 문화비평 작업이 이 작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점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Wilson Follet이 이 작품을 James 자신의 창작행위에 대한 패러디로 해석한 이후 많은 평자들이 이 작품의 일인칭 화자를 예술가적인 인물 혹은 소설가적인 인물로 해석하게 되었다. R.P. Blackmur, Philip M. Weinstein, Sergio Perosa, E.C. Curtsinger 등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처럼 해석한다. 이와는 반대로 Leon Edel이나 Oscar Cargill은 화자를 예술가로 보는 견해, 혹은 *The Sacred Fount*를 James 자신에 대한 패러디로 보는 견해를 비판한다. Edel

- 1) 1923년에 출판된 Macmillan판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 작품의 인용은 괄호 속에 면수만 병기할 것이다.
- 2) 대부분의 평자들은 이 작품이 워낙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므로 작품의 질을 따지기를 주저하면서도, James 자신의 평가를 수용하여 이 작품이 기법적인 실험이라는 점에서는 훌륭하지만 다른 측면들에서는 James의 다른 주요 작품들에 못미친다고 평가한다. 특히 Joseph Warren Beach, D.W. Jefferson, Claire J. Raeth 등은 이 작품을 실패작이라고 못박고 있다. 반면에 이 작품을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평자에는, 이 작품이 현대인의 존재론적인 곤경을 다루고 있다고 해석하는 Robert J. Andreach와, 이 작품이 창작 중인 작가에 대한 우화를 훌륭하게 그려냈다고 해석하는 E.C. Curtsinger가 있다.

은 James처럼 진지한 작가는 자기 작품에 대한 패러디를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코 자신에 대해 패러디나 풍자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³⁾ Cargill 역시 Edel의 말에 동조하여 이 작품을 James 자신에 대한 패러디로 보는 견해를 비판한 후 화자의 '집착'이 타락한 사회의 한 증상이라고 주장한다.⁴⁾ 그러나 Edel이나 Cargill의 해석이 화자를 예술가적인 인물로 해석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Edel과 Cargill의 해석을 후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만 이 작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화자를 심미주의 예술가이자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 있는 Newmarch라는 세계, 곧 세기말의 영국현실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로 해석할 것이다.

2. Newmarch의 세계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일인칭 화자와 Brissenden 부부, Gilbert Long, 화가인 Ford Obert, Lady John, May Server 등이 이 작품의 주요인물로 등장한다. 이들이 주말의 파티장소로 삼는 Newmarch는 런던 교외에 있는 저택으로서, James의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집' (The House Beautiful)의 의미를 일부 지니고 있으나, Garden Court나 Poynton같은 오랜 전통을 지닌 서구문명의 훌륭한 유산이라는 이상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Newmarch는 런던 상류사회의 온갖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장소로 드러나며, 이 속에서 벌어지는 화자의 집착도 결국 그 문제점들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아름다운 집'의 의미가 이토록 변화한 것도 이 작품에서 세기말의 현실에 대한 James의 절망감이 대단히 짙게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Newmarch는 *The Portrait of a Lady*의 Garden Court나 *The Spoils of Poynton*의 Poynton보다는 *The Golden Bowl*에서 Prince와 Charlotte의 불륜이 벌어지는 Matcham에 더 가깝다.

Newmarch는 런던의 상류사회 사람들이 모여서 사교모임을 벌이는 장소로서, 미로 같은 방들과 심지어는 화랑까지 갖춰진 집으로 제시된다. 이 작

3) Leon Edel, "The Sacred Fount," *Henry James's Major Novels: Essays in Criticism*, ed. Lyall H. Powers (Easr Lansing: Michigan State UP, 1973).

4) Oscar Cargill, *The Novels of Henry James* (New York: Hafner Publishing Company, 1971) 281-283 참조.

품에서도 Newmarch의 외형은 Poynto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의 묘사되지 않고, 일인칭 화자의 말을 통해서 극히 적은 정보만 전달될 뿐이다. 그러나 Newmarch를 런던 상류사회의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소우주라고 전제한다면, Newmarch에 모인 사람들의 여러 행태들을 통해서 Newmarch가 어떤 세계로 제시되었는지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화자가 집착하는 “신성한 샘물의 이론”은 사실 Newmarch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짝짓기 행태가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 Walter Isle은 화자의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화자의 이론은 자신이 주장하듯이 추상적이고, 순수하며 아름답다. 그러나 이런 특질들은 이 이론이 도출된 현실에 대한 가면이다. 이 이론은 뉴마치라는 세계에 있어서의 타락한 삶의 조건들을 우화나 비유 혹은 은유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가면이 씌워진 이 가정(화자의 이론)은 여러 쌍의 남녀들과 짝짓기에 관한 것이고, 숨겨진 관계와 부도덕한 관계들에 대한 것이다. 신성한 샘물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종류의 성적인 고갈과 흡혈행위에 대한 일종의 완곡한 표현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 모든 관계들에서 순수성과 우아함을 본다.

The narrator's theory is abstract, pure, and beautiful, as he maintains, but these qualities are a mask for the reality from which it derives. It raises to the level of apologue or parable, to metaphor, the corrupt conditions of life in the world of Newmarch. The masked assumption is of couples and coupling, of hidden liaison and immoral arrangements. The sacred fount in itself is a euphemism for some sort of sexual depletion or vampirism; but the narrator sees in all these arrangements a purity and elegance.⁵⁾

런던 교외의 고립된 장소인 Newmarch는 공공연하게 혼외의 관계가 연출되는 세계이다. 이같은 세계는 이미 1890년대의 *What Maisie Knew*와 *The Awkward Age*에서 익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Walter Isle의 논의에 따르면, *The Sacred Fount*에서는 이런 타락한 관계와 타락한 세계의 모습이 “신성한 샘물” 이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 화자의 의식 속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Newmarch의 세계는 *What Maisie*

5) Walter Isle, *Experiments in Form: Henry James's Novels, 1896-1901*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P, 1968) 225.

*Knew*나 *The Awkward Age*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도덕질서가 사라진 영국 상류사회의 세계인 바, 내부 모순에 의해 와해되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구성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이다. 그런 가운데서 타락한 개인관계를 가면으로 뒤집어 씌운 채, 뛰어난 재치를 발휘하는 채 하거나,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행동규범”(exacting rules of *comportement*)⁶⁾이라는 외형만이 남아있는 세계이다. 화자의 눈에 *Newmarch*는 “세련된 재사들의 훌륭한 피난처”(the great *asylum* of the *finer wit*) (78)로 여겨지며, 상상력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세계이자, “탁월한 지성”을 적용할 수 없는 장소로 나타난다(123). 또한 손님들도 제각기 “멋지고 즐겁게”(124) 보여야 하고, 서로 “화합과 취미라는 고도의 특권”(124)을 존중해주는 정도의 세계, 즉 개인의 내면세계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면을 쓴 채 예의범절이라는 외형적인 사회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걸모습만 화려하게 유지되는 세계이다.

나아가 교외의 저택들이 지녔던 본래의 미덕들이 사라진 가운데, 지나치게 요란한 껍데기만 남아서 “대단히 세련되고 형식적인”(so *fine and formal*) 인간관계만이 지배함으로써, “여름 밤의 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못하는”(the *summer stars called to us in vain*) (156) 세계, 달리 말하면 모두가 자연과 교감할 만한 상상력을 상실한 채 “수정으로 만든 새장”(crystal *cape*) (156)에 갇혀 질식할 듯한 세계가 바로 *Newmarch*이다. 세기말의 영국 상류계층의 문화적 행태가 James에게 준 충격이 이처럼 강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숨막히게 하는 것은 일인칭 화자 자신의 ‘이론’에 대한 집착이다. 화자는 무질서한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정립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Newmarch*의 모든 사람들을 관찰한다. *Sklepowich*의 표현을 빌면, 화자의 지나친 관찰행위가 탐정의 수사에 자주 비유되는 가운데, “박해자”와 “소녀”가 벌이는 추적과 탈출의 과정이 화자가 행하는 일종의 “추론이라는 잔인한 게임”(a *ruthless game of speculation*)이 되며, 이 과정에서 여주인공, 즉 *May Server*가 화자의 지속적인 관찰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세계가 *Newmarch*라는 것이다.⁷⁾ 아이러니컬하게도 *Newmarch*라는 세계의 본질적인 면모를 가장 근접하게 체현한 인

6) E.A. Sklepowich, “Gossip and Gothicism in *The Sacred Fount*”, *The Henry James Review* 2 (1981) 114.

7) Sklepowich, 113.

물이 바로 화자 자신인 셈이다. Sklepowich의 말을 다시 빌면, 화자는 Newmarch라는 세계를 확대 혹은 집약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Newmarch의 유사성 혹은 연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Newmarch와 그 손님들에 대한 판단이 곧 자신에 대한 판단임을 화자는 깨닫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범한다는 것이다.⁸⁾

3. 화자의 “신성한 샘물” 이론

앞서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서술한 바와 같이, 화자는 Newmarch로 가는 열차 안에서 Mrs. Brissenden과 Gilbert Long의 변화를 발견하고서, 그 변화의 원인을 추적하던 중에 Brissenden이 이전보다 더 늙어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화자는 Brissenden 부부 사이에서 소위 흡혈귀의 흡혈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성한 샘물”(the sacred fount) 이론을 정립하여, 이 이론의 틀을 Long의 변화에 적용시킴으로써 Long에게 변화를 일으킨 문제의 여인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탐정처럼 냄새를 맡으며 추적한다. Long의 경우 역시 남녀 관계라는 성관계이면서도 육체적 관계에 가면을 씌워 지적 능력을 주고받는 관계로 포장된다. 화자는 Brissenden 부부에게서 성립되는 관계항을 Long에게 적용하여 일종의 등식을 만들어낸다. Joseph Warren Beach는 화자의 이론의 발전과정을 아래와 같은 등식으로 표현한다.⁹⁾

$$X : D :: A : B \rightarrow C : D :: A : B \rightarrow A : C :: B : D$$

여기서 A와 B는 각각 Mrs. Brissenden과 Mr. Brissenden이고 D는 Long이며, X는 Long의 상대가 되는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다. 화자는 관찰과정에서 화자인 Obert의 도움에 힘입어 그 여인이 May Server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한 Mrs. Brissenden과 Long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May Server와 Mr. Brissenden 사이에 서로 공감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성립됨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화자는 개인들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법칙”을 찾아 일종의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 여기서 화자가 개인들의 관계에서, 혹은 무질서한 현실에서 존재하는 ‘법칙’을 찾아, 무질서한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려

8) Sklepowich, 114.

9) Joseph Warren Beach, *The Method of Henry James* (Philadelphia: Albert Saifer, 1954) 252-3.

는 작업이 어떤 의미를 띠며,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each의 등식이 보여주듯이 화자는 애초부터 복잡한 개인들의 관계를 지극히 단순화하여 이항대립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인다. Newmarch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정거장에 나가서도 “있을 수 있는 친구들과 심지어 있을 수 있는 적들”(possible friends and even possible enemies)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두려움”이나 “희망”, 그리고 “매력적인” 것과 “황량한” 것 등과 같은 이항대립적 요소를 내포하는 “상당히 멋지게 들어맞는 모호한 것들”(rather happy ambiguities)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3). 이처럼 애초부터 이항대립적이고 기계적인 사고경향을 지닌 화자이기에 개인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드러내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예컨대, Mrs. Brissenden의 변화의 경우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Long의 변화는 변화라고 판단할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고 지극히 우연적인 것이다. 화자는 이전에 Long이 화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바보스런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3-4), 이번에 다시 Newmarch에 가는 길에서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며, 이전의 만남에 대해서 언급하기까지 하자, 여기서 이미 Long에 대한 평가를 이전과는 정반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차 안에서 Long과 더불어 Mrs. Brissenden이 이전보다 젊어지고 아름답워진 점에 대해 얘기하던 중에 화자는 은연중에 Long이 이전보다 훨씬 더 영리해졌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7). 이처럼 화자는 지극히 우연적인 근거에 기초한 이론에 집착하여 이 작품 전체에 걸쳐 관찰과 법칙을 찾아내는 일에 몰두한다.

물론 화자의 이론이 Newmarch의 부도덕한 남녀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복잡한 인간관계를 지극히 단순화하여 수학의 등식으로 환원하려는 사고방식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더욱이 단순화된 등식에 기초한 법칙이 오히려 Newmarch에 만연한 부도덕하고 껌데기만 남은 인간관계를 그럴 듯하게 가면을 씌워 포장함으로써 Newmarch라는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가로막기조차 한다. 이것은 물론 화자가 Newmarch라는 세계를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화자의 관찰과 분석 작업의 목표는 현상 혹은 현실 속에서 일종의 “법칙”을 찾아내는 일이다. 화자가 관찰에 “집착”하면서 “과학적 법칙”을 찾아내려는 행위는, 많은 “현상”들에 대한 관찰결과를 토대로 그 법칙을 세우는 것이 라기 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작품 초반에 Brissenden 부부의 변화와 Long의

변화를 토대로 “이론” 혹은 “법칙”을 미리 세운 후, 이 이론의 등식에서 “X”로 비워둔 항을 찾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화자는 법칙을 세우기 위한 관찰 작업의 원칙을 화가 Obert와의 대화 중에서 “심리적 징후” 혹은 “심리적 증거”에만 근거하는 것으로 정한다(52-3). 화자는 이런 원칙을 세우는 이유는 탐정처럼 “한 여인이 비밀로 할 이유가 있는 관계를 냄새맡는 일”이 명예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52-3). 화자는 이런 관찰 원칙이나 “법칙”이 Newmarch라는 질식할 듯한 무질서한 세계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냄새”, “파헤치기”, “냄새맡기” 등의 표현을 화자가 자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관찰행위를 탐정의 수사행위에 비유하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의 관찰행위는 Newmarch의 손님들을 더욱 질식할 듯한 분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빚는다. 화자더러 들쭉시키고 다니며 “신”(providence)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Lady John의 반응이나, 잠시도 화자의 눈을 피하지 못하는 Mrs. Server의 반응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화자는 May Server를 마치 매의 사냥감인양 자신의 관찰과 “게임”의 대상으로 여긴다. 화자의 도착적인 호기심에 따른 관찰 결과, May Server는 결국 “말라비 틀어진 해면동물”(107)을 연상시킬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것을 소진시키는 열정이 단호한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마치 먹이감 위에 내려앉듯 점찍어 놓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전에는 내가 본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보았다. 그녀는 나에게 말라비 틀어진 채 미세한 구멍을 딱 벌리고 있는 해면동물을 연상시켰다. 속을 다 긁어내어 텅 비어 있어서 그녀의 껍질은 그저 부서질 수 있는 것 뿐이었다.

I saw as I had never seen before what consuming passion can make of the marked mortal on whom, with fixed beak and claws, it has settled as on a prey. She reminded me of a sponge wrung dry and with fine pores agape. Voided and scraped of everything, her shell was merely crushable. (106-107)

이처럼 무질서한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법칙”을 찾아내려는 화자의 관찰행위는 대단히 억압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화자가 “순전히 지적인” 관찰과 추론을 토대로 관찰대상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조종하려 하기 때문이다. 물론 물리적으로 관찰대상들과

Newmarch의 세계를 위협하거나 조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자의 행위는 점점 더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컨대, 화자는 이미 언급한 Mrs. Server 외에 Guy Brissenden에 대해서도 “지적인 측면으로 말하자면, 그가 지금 내 손 안에 들어 있어서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밀랍같다고 나는 느꼈다”(I felt as if he were now, intellectually speaking, plastic wax in my hand.) (99)라고 말할 지경에 이른다. 화자는 마치 예술가가 작품의 인물들을 마음대로 주물러 운명을 결정하듯 Guy 정도는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역시 대단히 억압적이고 위협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여기서 화자에게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그에 대한 James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다. Mrs. Server에 대한 정보를 캐기 위해 은근히 Brissenden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던 화자는, 자신이 가장 바보스럽고 “해를 끼치지 않는” 인물로 간주했던 Brissenden에게 오히려 멋지게 당한다. 화자는 Brissenden에게서 Mrs. Server에 대한 정보를 캐려다가 도리어 Brissenden에게 말려들어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연정을 은근히 밝히게 된다. 여기서 화자는 Brissenden의 “예리함”에 감탄했으면서도 여전히 그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인물로 간주한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Newmarch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해온 화자가 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바보”라고 간주해온 Brissenden보다 훨씬 못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화자가 Mrs. Server의 매력이라고 일컬은 “아름답고 다정하며 좀 별난”(beautiful and gentle and strange) 점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모두 해당하는 것이라고 Brissenden이 반문하자, 화자는 그저 변명하기에 급급해진다. 게다가 Brissenden은 그토록 집요하게 Mrs. Server를 관찰해온 화자보다도 그녀가 처한 입장을 훨씬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처지에 깊은 공감을 보이기까지 한다. 즉, 화자가 Mrs. Server의 매력 운운했던 점은 “매력이 아니라 너무 이상한 것”(95)에 지나지 않고, 그녀가 대단히 불운한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겉으로는 행복한 체하고 있을 따름이며, 이런 거짓 웃음을 유지하는 일이란 대단히 끔찍한 일이라고 Brissenden은 말한다. 이렇듯 Brissenden이 말주변이 별로 없는 “바보스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불운한 상황에 처한 Mrs. Server에게 공감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베풀었다는 점과 화자의 말에 대한 반문에서 드러나는 그의 예리한 현실인식은 화자의 관심 방향과 유아론적 자만심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찰된 “심리적 징후”에 근거하여 화자가 세우려는 “법칙”이란 지극히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사 혹은 인

간관계의 형성과정을 수학적 공식과 다름없는 “법칙”으로 세우려는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관심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법칙”이나 관찰에는 개인의 지극히 일상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화자는 “과학적인 법칙” 운운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바보라고 여긴 Brissenden보다도 삶의 깊이를 모르고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관찰하여 법칙을 세우고 무질서한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겠다는 화자의 의도는, 남들의 사생활을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을 그럴듯한 용어와 논리 혹은 “이론”으로써 포장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Newmarch 세계가 속으로는 도덕적으로 썩어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화려하게 차리고 예의범절을 깎듯이 지키며 각자의 뛰어난 재치를 자랑삼는 빅토리아 말기의 세계를 대변하듯이, 화자의 ‘이론’ 역시 삶의 방향과 깊이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없이, 그저 표피에 지나지 않은 현상, 즉 겉데기만 남은 세계에서 개인들이 피상적으로 맺는 관계의 “법칙”을 찾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지극히 병적인 관심에 “이론”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씌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화자 자신도 Mrs. Brissenden과의 마지막 대면 후에, 앞서 언급한 May Server의 경우처럼, 자신의 호기심과 관찰 탓에 타인들의 “무의식”을 파괴했다고 고백하기에 이른다(230). 물론 이 대목이 Mrs. Brissenden에게 “당신은 미쳤군요”라고 호되게 당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화자의 생각이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자기변명으로 읽혀질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자가 자신이 행한 관찰행위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화자는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지적 유희”의 대가가 “느낌의 희생”(sacrifice of feeling)임을 고백하기에 이른다(230-1). Newmarch라는 무질서한 현실에 “질서”라는 “빛”을 부여하려 했던 화자의 행위는 오히려 이 어두운 세계에 심리적인 억압과 질식할 듯한 분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이같은 화자의 행위가 지니는 의미는 그를 예술가적인 인물로 전제하고 해석할 때 충분히 밝혀질 수 있다.

4. 예술가적인 관찰자로서의 화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del과 Cargill은 이 작품이 James 자신의 글쓰기 작업에 대한 패러디라는 주장과 화자를 예술가적인 인물로 보는 견해를 모두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James 자신에 대한 패러디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화자가 예술가적인 인물로 제시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이다. 무엇보다도 화자 자신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예술가의 행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설가의 창작행위와 연관된 말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점에서 그 일차적인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화자인 Ford Obert와 대화 중에 화자는 “자네가 그림을 그리듯 나는 이야기를 할 뿐이라네”(I only talk . . . as you paint) (25)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현실의 “법칙”을 찾아 질서를 부여하려는 화자의 행위도 예술가적인 기질로 간주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화자의 예술가적 기질은 심미주의적인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화자는 유기적 형식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174-5), 법칙이나 이론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작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관계 속에서 “과학적인 법칙”을 찾아 유기적 형식 혹은 질서를 부여하려는 화자의 기질은, 개인들의 관계와 현상들에 “대칭적인 균형” — fine symmetry 혹은 balance로 표현된다 — 을 부여하려는 행위로 나타난다(143). 즉,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의 실체들에 “인공적인 균형”(artificial proportion)을 부여하여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내려는 것이 화자의 의도이다.

뿐만 아니라, 화자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예술의 여러 장르들을 비유로 삼고 있으며, 특히 “소설”, “무대”, “드라마” 등의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 말하자면, 화자의 머리 속에는 화자 자신의 “이론”과 관련된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듯, 자기가 관찰한 내용들을 그 시나리오에 맞추어보는 것이다. 즉, 화자 자신이 머리 속에서 일종의 작품을 창작해내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작가의 창작과정과 연관된 비유들은 이 작품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이 비유들은 우연히 쓰인 것이 아니라 화자의 행위, 즉 관찰과 명상, 그리고 이론수립을 통한 법칙의 발견 등의 행위가 일종의 허구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허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화자는 관찰대상이 된 인물들을 “나의 수집품들” 혹은 “박물관”(83)이라고 일컬으며 각각의 인물들을 자신의 시나리오에 맞게 배치하는 과정으로 표현한다.

다른 한편, 화자는 ‘독자’ 혹은 ‘비평가’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한다. 화자 자신의 관찰행위가 계속해서 “책읽기”로 표현되면서, 이 행위에 현상 혹은 현실에 대한 해석행위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이 점은 현상 혹은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행위가 두드러지는 James의 1890년대 실험기 작품들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는 “책읽기”, “책”, “상상력”(143) 등의 표현들이 모두 독서행위와 연관된 표현들이

사용됨으로써 화자의 행위가 더 직접적으로 독자의 해석행위로 표현된다.

그러나 독자 혹은 비평가로서 현실을 해석하는 행위나 예술창조자로서 허구를 구성하는 과정은 “물질적인 실마리” 없이 “순전히 지적인” 유희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앞서 Brissenden과 대화하는 대목에서 보았듯이, 화자가 구체적인 현실과 맺는 관계는 지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다. 대화를 통해 극화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화자의 주관적인 해석행위 혹은 창조행위와 연관된다는 사실이 이 점을 뒷받침한다. 즉, 화자는 관찰을 통해 얻은 지극히 부분적인 “실마리”를 가지고 지나친 과장과 확대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인물들의 행위나 관계들을 재구성하여, 작가가 인물을 창조하듯 화자 자신이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 Mrs. Server를 만나는 대목(8장)일 것이다. May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눈에는 Newmarch가 마치 “마법의 성”(castle of enchantment)으로 보인다. Guy Brissenden과 헤어진 후, 멀리서 May가 자기쪽으로 걸어오는 광경을 목격하고서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이다. 화자의 주관적인 상상력이 무질서하고 질식할 듯한 Newmarch 세계를 낭만적인 세계로 채색하여 변형시킨 셈이다. 이와 더불어, 여태껏 풍경묘사가 거의 없었으나 화자의 낭만적인 정서에 힘입어, 풍경묘사가 풍성해진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저녁 노을에 물든 풍경에 대한 낭만적인 묘사가 두드러진다(102). 뿐만 아니라 May의 모습조차도 낭만적인 감성으로 채색되어 묘사된다(103). 화자는 Newmarch의 이 장소를 “이 신성해진 구석”(this consecrated nook)(102)이라는 낭만주의 시인이 좋아할 법한 말로 칭한다. 사실 “마법의 성”도 Coleridge의 “Kubla Khan”을 연상시키는 말로서 상상력, 즉 “나 자신의 마법”(my own wizardry)으로 세운 장소를 의미한다. 화자는 더 나아가 May가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광경을 “나 자신의 마법의 결과”(the fruit of one's own wizardry) 혹은 “나의 작품”(my work)이라고 여긴다(101). 심지어는 May가 그 곳에 있게 된 것도 “나 자신의 지성의 작용”(the operation of my own intelligence)(102)에 의한 것이라고 여긴다.¹⁰⁾ 화자의 ‘병적인’ 생각은 극단화되어 그는 자신의 주

10) Dorothea Krook은 이 대목을 일컬어 James가 Wells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던 “예술이 삶을 만든다”(art makes life)는 생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James가 Wells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분적으로 심미주의자들의 생각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대목에서 James가 심미주의적 경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작품에서 James는 심미주의적인 화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있다. Dorothea Krook, *The Ordeal of Consciousness in Henry James* (Cambridge: Cambridge UP, 1963) 184-5.

관적인 의식이나 생각에 따라 현실 자체가 변화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고 자신의 의식 외의 현실은 전혀 수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무질서한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화자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와 같은 화자의 모습은 심미주의자들의 경향과 대단히 유사하다. James는 이 작품에 이르기까지 줄곧 심미주의에 대한 비판을 견지해왔는데, 그의 심미주의 비판의 요지는 심미주의자들이 삶 자체에 환멸을 느낀 채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그저 삶의 표면만을 다루면서 스타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¹¹⁾ 물론 화자는 James 당대의 심미주의자들을 직접 표본으로 삼은 것은 아니며 그 경향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해당한다.

자신의 주관적인 상상과 추측을 통해 이루어지는 화자의 '창작행위'는 피아노 연주회가 있던 날 밤(9장)에 대한 서술에서 극에 달하여, 그는 마치 May Server를 "전체를 지배하는 이미지 형식, 구성의 진정한 원리" (the controlling image form, the real principle of composition) (131)로 삼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비유한다. 화자는 늘 하던 습관처럼 자기의 분석내용을 종합하고 또 관찰하는데, 이는 작가가 자신의 재료를 종합하는 과정에 비유된다. 화자는 자기의 '이론'에 따라 이제 "드라마"가 "절정"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관찰대상들은 자기의 드라마의 배우 노릇을 하게 된다(132). 자기가 구성한 '이론' 혹은 허구에 따라 한편으로는 "희극"이 구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극"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화자의 '창작행위'는 복잡한 현실의 삶을 그저 "단순한 인간사" (mere human things) (123)로 치부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 자체에 대한 그의 관심과 깊이가 워낙 피상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들 혹은 현실의 "법칙"을 발견해서 무질서한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겠다는 화자의 생각도 심미주의자들의 작업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화자가 Newmarch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교제하는 모습을 이 작품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자는 인간관계와 삶 자체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도 그저 자신의 이론에 대

11) 심미주의자들에 대한 James의 비평문들은 Leon Edel이 편집한 *Henry James: Literary Criticism*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1984)으로 편집된 두 권의 책에 실려있다. James가 비평문들에서 다룬 심미주의자에는 Théophile Gautier, Gustav Flaubert, Charles Baudelaire, Gabriele D'Annunzio 등이 있다. 심미주의자들에 대한 James의 논의와 관련하여 James의 비평문들이 지니는 의의에 대해서는 F.R. Leavis, "James as Critic." *The Critic as Anti-Philosopher*, ed. G. Singh (Athens: U of Georgia P, 1982) 참조.

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예컨대, Mrs. Brissenden과의 대화는 화자 자신의 '이론'에 대한 설파와 그녀가 이를 수용하여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친밀한 듯이 보이는 Ford Obert와의 대화 역시 Mrs. Server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는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상상과 분석의 세계, 즉 유아론적인 세계에 빠져서 고립된 나머지, 다른 인물들과 제대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화자의 '이론'에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듣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관심없는 눈치를 보이게 된다.

Oscar Wilde 같은 심미주의자들이 삶을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것으로 간주한 채 예술작품이라는 인공물의 세계에 안주하듯, 화자도 삶과 타인들로부터 고립되어 자신의 의식 혹은 상상 속에서 인공적인 공간을 만들어 그 속에서 안주한다. 이 유아론적 공간에서 화자는 마치 인물들을 마음대로 조종하여 지극히 낭만적인 성을 쌓고 작품을 창작하지만, 진짜 삶의 현실은 그가 접근하기에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그에게는 자신의 의식 속에서 재구성한 허구가 현실이고 자기 세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가 일시적으로 "느낌의 희생"이라는 자책감을 느꼈다고 해서 이 허구의 세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터이다. 무질서한 현실에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려 하는 화자는 결국 자신의 의식 속에서만 "대칭적 균형"을 성취한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화자는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127)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유아론적 자만심을 드러내게 된다. 그의 유아론적 자만심은 "내 개인의 승리", "내 개인의 광기", "내 개인의 의기양양한 기분", "내 개인의 즐거움" 등으로 표현되어 고립된 예술가의 광기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심미주의적 작업은 결국 모더니즘의 난해성 문제로 귀결된다. 화자는 고립된 예술가로서 끝내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해대며, 자신의 "비유들", 즉 자신의 예술작품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222). 특히 화자인 Obert도 이해할 수 없는 은유를 계속 사용하면서 그를 의아하게 한다(160). 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이 위트와 지성에 있어서 자신과 통한다고 인정했던 Mrs. Brissenden조차 화자의 Cinderella 운운한 비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작중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독자도 마찬가지로 입장에 처한다. 화자 자신의 뛰어난 재치, 혹은 '뛰어난' 예술가적 상상력을 이런 식으로 자랑삼아 드러내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상상과 의식의 세계에 갇혀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술작

품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가 구성해온 예술작품 —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성한 샘플 이론”을 의미한다 — 은 “생각의 궁전” (palace of thought) (242), “생각의 왕국” (kingdom of thought) (198) 혹은 “거대하고 번쩍이는 수정 궁전” (a great glittering crystal palace) (160) 등으로 표현되어 심미주의적 작업의 정확을 대변하고 있다. 마치 화자 스스로가 *The Sacred Fount*라는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구성해온 ‘예술작품’은 현실에 밀착하지 못한 탓에 끝내 Mrs. Brissenden에 의해 “카드로 만든 집” (20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 Mrs. Brissenden은 화자에게 “당신은 너무 많이 보는군요” 혹은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요” (203)라며 그의 과도한 관찰과 과도한 상상력을 질타한다. 화자가 지나친 관찰과 지나친 상상력 탓에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끝내는 주관적인 상상과 자기중심적인 의식 세계에 갇힌 채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Mrs. Brissenden의 다음 말은 화자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예술가에게는 일종의 정문일침이 되는 말이다.

“내 말은 당신이 멋진 공상에 의해 넋을 잃은 채 오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처럼 사물들을 해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도 스스로 어디에 있는지를 늘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물론 당신이 대단히 영리하다는 사실을 나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카드로 만든 집을 짓고 있군요.”

“I mean you're carried away — you're abused by a fine fancy: so that, with your art of putting things, one doesn't know where one is — nor, if you'll allow me to say so, do I quite think you always do. Of course I don't deny you're awfully clever. But you build up . . . the houses of cards.” (204)

집요하게 추적과 관찰을 통해 만들어낸 일종의 예술품, 즉 그의 이론이 Mrs. Brissenden이라는 “실제의 진실” (198)에 부딪치자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져버린다. Mrs. Brissenden의 말대로 화자는 과도한 관찰과 상상의 세계에 빠져서 현실과의 연관을 상실한 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무의식”을 망쳤다거나 “느낌의 희생”을 야기했다는 자기반성을 이미 부분적으로 보여주었고 작품의 마지막 대목에서

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화자의 집착은 너무도 강한 것이어서 자신이 패배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유아론적 세계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리라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이 작품의 화자를 심미주의적 예술가로 해석할 근거는 충분하다. 이 작품에서도 James는 화자의 '도덕적 불모성'을 비판하고 있다. Newmarch에서 벌어지는 타락한 현실에서 비껴나있는 듯이 보이는 화자가 오히려 더욱 타락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셈이다. "신성한 샘물"은 Newmarch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혼외의 관계를 육체적인 속성은 제거한 채 '순수한' '과학주의적' 사고의 차원으로 바꾸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후자야 말로 전자와 동전의 양면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억압적이고 더욱 타락한 형태의 삶을 James는 보여주고 있다. 화자의 '순수한' 지적인 호기심은 구체적인 삶과 인간관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오로지 삶의 표피에만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화자의 행태에 James가 심미주의자들을 비판할 때마다 사용했던 '도덕적 불모성'이라는 표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삶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공감의 결여를 일컬어 James는 '도덕적 불모성'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대단히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점에서는 이 작품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Primary Sources

James, Henry. *The Sacred Fount*. 1901. London: Macmillan, 1923.

_____. *Henry James Letters*. 4 vols. Ed. Leon Edel. Cambridge: Harvard UP, 1974-1984.

2. Secondary Sources

Andreach, Robert J. "Henry James's *The Sacred Fount*: The Existential Predicament." *Nineteenth Century Fiction* 17(1962): 197-216.

Beach, Joseph Warren. *The Method of Henry James*. Philadelphia: Albert

- Saifer, 1954.
- Blackmur, R.P. *Studies in Henry James*. New York: New Directions, 1983.
- Cargill, Oscar. *The Novels of Henry James*. New York: Hafner Publishing Company, 1971.
- Curtsinger, E.C. "James's Writer at the Sacred Fount." *The Henry James Review* 3(1982): 117-128.
- Edel, Leon. "The Sacred Fount." *Henry James's Major Novels: Essays in Criticism*. Ed. Lyall H. Power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P, 1973.
- Jesserson, D.W. *Henry James and the Modern Reader*. London: Oliver & Boyd, 1964.
- Krook, Dorothea. *The Ordeal of Consciousness in Henry James*. Cambridge: Cambridge UP, 1963.
- Perosa, Sergio. *Henry James and the Experimental Novel*. New York: New York UP, 1983.
- Raeth, Claire J. "Henry James's Rejection of *The Sacred Fount*." *English Literary History* 16(1949): 308-324.
- Richard, Bernard. "The Ambassadors and *The Sacred Fount*: the artist manqué." *The Air of Reality: New Essays on Henry James*. Ed. John Goode. London: Methuen, 1972.
- Segal, Ora. *The Lucid Reflector: The Observer in Henry James*. New Haven: Yale UP, 1969.
- Sklepowich, E.A. "Gossip and Gothicism in *The Sacred Fount*." *The Henry James Review* 2(1981): 112-5.
- Tanner, Tony. *The Reign of Wonder*. Cambridge: Cambridge UP, 1965.
- Tintner, Adeline R. "A Gay Sacred Fount: The Reader as Detective."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1(1995): 224-240.
- Weinstein, Philip. *Henry Jame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Imagination*. Cambridge: Harvard UP, 1971.